

8. 규카엔(九霞園)

규카엔(九霞園)은 1929 년 개원했으며, 그때부터 자라온 수목도 몇 그루 존재합니다. 일본의 전 총리와 황족이 소유한 분재를 관리하고 있으며, 편안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정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분재가 자라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철사 감기 등의 강제적인 기술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곳에서는 자연이 풍요롭게 성장하는 ‘분재의 생명력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아름다운 형태와 디테일은 세심하고,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가지치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. 규카엔의 이 전통은 가위와 기타 분재 도구의 개발과 유통이라는 또 다른 전문분야를 만들어냈습니다. 규카엔에는 보통은 분재에 사용되지 않는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나무의 대부분은 일본열도 최대의 섬인 혼슈산이지만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에서 들어온 나무도 몇 가지 있습니다.